

“북한 불교문화재 남북교류 기여 신호탄”

강현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북한불교 이해’ 세미나서

북한 문화재 보존과 관련 장비 지원 등을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현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이 6월 1일 개최한 ‘북한불교의 이해’ 세미나에서 “남북 경제 국면에서 북한 내 현재 경제난 등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 내 민족유산 보존 및 활용 분야는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 강화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연구원은 이날 북한 내 문화재, 특히 불교 문화재가 차지하는 위상을 설명하고 불교계 또한 남북교류에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북한은 문화재에 대해 민족유산이란 관점에서 남한의 문화재청과 동일한 문화보존지도국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며 남북 문화재 공동 보존과 연구 분야에 당국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강 연구원이 공개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북한 문화재 지정현황에 따르면 북한 내 문화재 지정은 국보유적 193건, 보존유적 1,723건, 국보유물 83건, 준국보유물 121건, 명승지 223건, 천연기념물 467건. 강 연구원은 여기에 “이 중 사찰건축과 석조물 등 불교건축물이 80건에 달하며 전체 문화재 중 41.5%가 불교유물”이라며 북한 내에서도 불교문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아직 매장문화재 형태로 사지 등에 잔존한 문화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면 많은 수의 불교문화재들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많다”며 불교계의 공동연구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강 연구원은 또 문화재를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보존장비 지원을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공동조사사업은 북한 특성 상 제한이 많기에 특수지역 외에는 북한이 자체 조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북한문화재 42% 불교문화재

매장문화재로 잔존 가능성 높아

공동연구 및 보존시설 지원 필요

어 주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북한박물관과 보존시설 노후화로 인한 훼손으로 이에 대한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북한 소재 사찰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그동안 접적이 불가했던 김일성종합대학의 불교도서에 대해 공개 해 논길을 끌기도 했다.

북한 지역 주요 박물관 불교문화재 소장 현황

지역	박물관명	불교문화재 소장현황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	영강7년명 금동광배(永康七年銘金銅光背), 평양 원오리(元五里) 출토 소조 보살입상 등
	조선미술관	조선후기 아미타불도 1점 등 불화 다수 소장
개성	고려박물관	전 적조사지 철조불상 등 개성 인근 수집
	고려시대 불교문화재	고려시대 불교문화재
함경북도	청진역사박물관	불일사 5층탑, 현화사 7층탑 등 석조물 야외전시
자강도	강계역사박물관	고려시대 금동보살좌상 1구
평안북도	향산역사박물관	석왕사 사자모양 노항로
	청동 다리니당(陀羅尼幢), 유점사 범종 등	팔만대장경, 금동미륵보살반가상, 고려시대 청동 다리니당(陀羅尼幢), 유점사 범종 등
평안남도	평성역사박물관	금동여래입상 1구, 범종 1점 등
황해북도	사리원역사박물관	고려시대 청동 불보살상 3구, 금강령 등
강원도	원산역사박물관	강원도 석왕사,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등
	사찰과 사지에서 수습한 불상, 향로, 범종 등	사찰과 사지에서 수습한 불상, 향로, 범종 등

이 교수는 “북한 최고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김일성종합대학에도 50여종의 불교도서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1958년도 발간된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 도서목록>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 종합대학 내에는 <금강반야바라밀경> <조선한글약어경> <유마경> 등 30여종의 경전류와 <육조법보단경> <대해보각산사서> 등 6종의 중국전술, <선가귀감> <선학입문> 등 9종류의 한국전술 등이 소장돼 있다.

이종수 교수는 “김일성 종합대학 외에도 묘향산 보현사를 비롯한 북한사찰과 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등 인문학 연구기

관 불교전적 등이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남북공동조사에 앞서 남한에서 <조선사찰기증재산목록> 데이터베이스화 등 북한소재 사찰 재산목록 분석 등을 선행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동국대 정각원 장 법타 스님의 ‘북한불교’ 기조강연에 이어 △조성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의 ‘북한의 불교정책과 북한불교의 변모’ △이노우에나오키 일본 교토부립대 교수의 ‘북한의 고구려 · 고려사찰’ △이희범 고려대장경연구소 사무처장의 ‘남북한 불교교류의 성과와 과제’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학술 · 문화재소식

“일본불교 백제불교 흐름 남아 있어”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동양미술사학회 한일학술심포지움

일본불교에 백제 불교 문화의 영향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배병선)와 동양미술사학회(회장 배병선)는 6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3 한일학술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한나대 국립부여문화연구소 학예연구사는 ‘6~7세기 백제와 일본 사찰건축 비교연구’라는 발표에서 “일본의 1탑 1금당 가람배치는 백제 가람을 참고하고 조영 여건 및 주제에 따라 다른 가람 양식을 폭넓게 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삼론학 강요서(綱要書)의 유통을 통해 본 백제 불교학의 일본 불교학에의 영향’ 발표에

서 “일본 불교학 형성과 발전에 백제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한정호 동국대 교수는 ‘백제 불전장엄이 신라와 일본에 미친 영향’ 발표에서 일본 건축의 금송장식 문양에서 백제불교와 일본불교의 공통점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이날 학술심포지움에서는 △최문정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구원의 ‘백제 사비기와 일본 아스카데라(飛鳥)시대 궁원 비교연구’, △이병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백제에서 본 아스카 데라지(飛鳥寺)에 파견된 와박사(瓦博士)의 성격’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추사박물관, ‘추사의 삶과 교육’ 세미나

6월 12일 과천시민회관 3층 소극장에서 개관 기념 개최

과천시 추사박물관은 6월 3일 오후 2시 ‘추사의 삶과 교육’를 주제로 개관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병기 전북대 교수의 ‘추사의 생애와 서예분기의 상관성’ △박동춘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소장의 ‘조선 후기 추사가 차문화 흥중에 미친영

향’ △이종덕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의 ‘추사의 한글편지’ △김상영 인천대 겸임교수의 ‘추사와 소치 허련’ 등이 발표된다. 토론은 이종구 추사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박철상 책과그림 공동대표, 정서경 목포대 교수, 이병기 한림대 교수 등이 나선다.

노덕현 기자

불교 일본 종속 막은 ‘원기 선사’ 재조명

6월 14일, 동국대 다량관서 세미나실에서 학술세미나

‘경운원기 선양실천회’(위원장 호명)는 6월 14일 오후 2시 동국대 다량관에서 경운 원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살피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경운 원기 스님은 친일불교에 대해 박한영(朴漢永) 오성월(吳惺月) 한용운(韓龍雲) 스님 등과 함께 임제종(臨濟宗)을 설립한 선사다. 당시 원기 스님은 임제종 관장으로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에 종속

시키려는 음모를 막아냈다.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명예교수 범산 스님의 ‘경운 원기 스님의 불교사적 위상’ △차차석 동방대학원대 교수의 ‘근대 선암사의 화엄종풍’ △신규택 연세대 교수의 ‘화엄종주 경운 운기의 사상’ △김경집 위덕대 교수의 ‘근대 경운 운기의 활동’ △진철문 동국대 교수의 ‘서화에 나타난 예술세계’ 등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불광연구원 ‘역사교과서의 불교’ 학술대회

6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논의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 역사와교육학회와 공동으로 6월 15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불교 서술체제와 내용’을 주제로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르는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개선책이 모색된다. 연찬회에는 △신선혜 고려대 박사의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황인규 동국대 교수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노덕현 기자

“용성사상에서 사회문제 해결 지혜 찾자”

정도희, 6월 4일 용성조사 탄신기념 심포지엄서 한 목소리

“용성 스님이 제시한 불교의 생활화 · 대중화 · 지성화는 현재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안입니다. 용성 스님의 불교개혁운동에 따라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은 정도희(지도법사 법륜)가 개최한 ‘2013용성조사 탄신기념심포지엄’에서 용성 스님의 불교개혁운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마성 스님은 ‘용성선종의 불교개혁운동’에서 일제시대 불교계의 개혁안이 승단 세속화를 가중시켰기에 용성 스님은 승단 정정화를 통해 조선불교 전통을 고수하고 새로운 교회활동을 전개했다고 평가했다.

마성 스님은 이날 “불교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에는 잘못이 없으며 바뀌어야 할 것이 없다”며 “용성 스님은 그 가르침을 전하는 방법을

시대에 맞춰 변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성 스님은 용성 스님의 불교개혁운동을 △승단정화운동 △계법중흥운동 △불교의례개혁운동 △선농불교운동으로 나눠 설명했다.

마성 스님은 “승단정화와 계법 중흥은 조선불교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이며, 불교의례개혁과 선농불교운동은 시대에 맞는 교회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용성 스님은 무엇보다도 황폐화된 승단의 개혁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며 “당시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조선불교의 면모가 퇴색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재영 동방불교대 교수는 ‘용성 선사의 불교대중화운동’에서 “지금까지 우리 불교는 앉아서 생각으로, 또는 입으로 내세우는 구수에 깊이 물들여져 왔



마성 스님



김재영 교수



임형진 교수

다”며 “용성 스님이 현상으로 달려갔을 우리 불자들이 현장불교에서 활발히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형진 경희대 교수는 ‘용성,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다’에서 “용성 스님의 불교경전 한글역경과 불교대중화 운동은 한국 민족주의의 전형”이라며 “용성 스님이 존경받아 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 앞서 정도희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오늘날 한반도는 전쟁

위기를 비롯해 양극화 심화, 공동체 붕괴, 자연환경 파괴 등 온갖 위기를 목도하고 있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용성조사를 만나고 이 시대의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지혜를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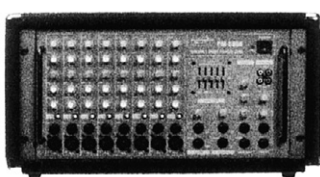
학술대회에는 법륜 스님을 비롯해, 박남수 천도교 교령, 박유철 광복회 회장, 불교 TV 대표이사 성우 스님, 정세균 민주당 국회의원 등 내외빈 신도 1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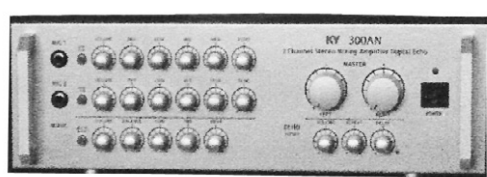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앰프, 스피커를 구입하시는 스님 20분께 “고급 앰프케이스”를 무료로 보시합니다!

(무료 보시 기한 : 2013년 6월 30일까지 선착순 20개 사찰)



파워드림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高音質 무선마이크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피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앰프케이스 출시

•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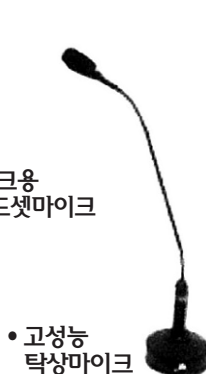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마이크 aV-620



•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 고성능 탁상마이크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